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공공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인 지도 꽤나 되어 이제는 아무도 이 단어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이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이 단어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더욱이 이 단어를 영어로까지 번역하여 'Public Design'이라고 쓰는 것도 봤지만, 그 뜻을 알기 위해 위키 피디어를 찾았을 때 '당신이 그 뜻을 만든다'라고 나왔으니, 이는 영어에도 없는 단어인 게 분명하다.

이다. 도로 포장을 바꾸고, 가로등과 버스 정류장, 거리 간판 등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꾸거나 혹은 예쁜 공공건축물을 세워 시민들의 시각적 즐거움을 증대시키는 게 그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도시환경을 바꾸는 것이 꼭꼭할 업적이 된다고 여긴 것일 게

공공디자인 시비

다. 만약 이런 일이 목적이려면, '공공디자인'이란 단어를 '공공시설물 디자인'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단어의 뜻과 사업내용이 일치되고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여기에 있다. 그런 시각적 세련됨으로는, 도시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인 공공성을 조금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서울의 대학로에 방송통신대학이 있는데, 전체가 보기 싫은 담장으로 둘러 막힌 터라, 지역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이 담장의 철거가 참으로 요긴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담장을, 우습지도 않은 그림을 그려서 벽화라고 하며 그 존재

가치를 공인하고 말았으니, 이는 '공공디자인'이란 이름으로 자행한 공공성에 대한 폭행이었다. 혹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흔해 빠진 나머지 그저 분할하거나 립스틱 칠하는 정도, 혹은 잘 봐주어 세련된 시설물을 갖다 놓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애초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한 까닭이 도시를 보다 풍요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일 게다. 그렇다면, 지엽말단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아니라 '공공영역'에 대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도시, 농촌과 달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들을 공간적 흐름이 끊겨지지 않도록 구축하고 조정하는 일이 도시디자인이고 소위 공공디자인이어야 한다. 벤치나 가로등, 택시정류장 등의 색채나 모양 글자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며, 언제든 지울거나 제거할 수 있는 이련류의 시설로는, 우리 삶의 지속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결단코 담보할 수 없다. 눈에 어른거리는 부질없는 게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케 하는 내면적 고요이 디자인의 바른 목표인 것이다.

<건축가>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총감독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 칼럼

김대용



많은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병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원래 디스크란 척추 마디와 마디 사이에 들어있는 특수 조직을 말하는 것이며, 흔히들 물렁뼈라고도 한다. 이 물렁뼈가 쿠션 역할을 해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척추 마디 까리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디스크가 없다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디스크가 세월이 지나면서 또는 잦은 손상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쿠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신경관 쪽으로 탈출되는 것이다.

우는 디스크 탈출증보다는 퇴화된 디스크에 의한 디스크 자체통증인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세 번째로는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5분에서 10분 정도 걷고 나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조금 앉아서 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척추질환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x-ray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로는 척추뼈의 정상적인 곡선이 유지되는지, 디스크 간격이 정상인지, 척추의 불안정증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환자의 증

나도 디스크 병인가?

이것이 더 심해져 허리진증을 누르게 돼 증상이 생기는 것을 디스크 병이라 하고 하며, 이 종류에는 디스크탈출증을 비롯한 디스크내장증, 척추불안정증, 척추관협착증 등이 있다.

상이 확실히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된다면 MRI와 같은 정밀검사를 하게 된다. 허리디스크라고 진단받은 분들이 전문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하라고 하고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술적 치료보다 보존적 치료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경우에서 수술 없이 증상이 좋아진다. 디스크 탈출의 정도와 통증의 양상, 신경 마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디스크 탈출증은 4~6주간의 보존적 치료방법으로 대부분 증상이 좋아진다. 보존적 치료로는 약물치료, 견인치료, 열치료, 전기자극치료 등을 받는다. 최근에는 신경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허리가 아프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할 대표적인 증상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것은 허리보다는 한쪽 엉덩이에서 다리, 발끝으로 내려오는 통증이다. 이것은 디스크 중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테가 찢어져 수핵이 터져 나와 신경뿌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두 번째로는 평소 허리가 항상 아프고, 바다에 앉기가 매우 힘들며, 의자에 10분 이상 한 자세로 앉으면 허리가 뻐근해 바로 퍼지지 않는 경우이며, 이 경

도가 심해지면 허리진증을 누르게 돼 증상이 생기는 것을 디스크 병이라 하고 하며, 이 종류에는 디스크탈출증을 비롯한 디스크내장증, 척추불안정증, 척추관협착증 등이 있다. 이 물렁뼈가 쿠션 역할을 해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척추 마디 까리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디스크가 없다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디스크가 세월이 지나면서 또는 잦은 손상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쿠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신경관 쪽으로 탈출되는 것이다.

초추진환자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x-ray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로는 척추뼈의 정상적인 곡선이 유지되는지, 디스크 간격이 정상인지, 척추의 불안정증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환자의 증

경제 버팀목 중소 제조업 중 진출 러시 걱정된다

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모세혈관인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국내 중소기업분야는 완전히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요즘 소소한 생활품은 물론 웬만한 전자제품까지 전부터 메이드인 차이나가 아닌 제품이 없다. 그 이유는 중국에 공장을 세울 경우 싼값에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라고 한다. 거기다가 원자재 값 인상과 환율 하락, 인력난 등

도 중국 진출을 부추기는 요소일 것이다. 우리의 제조업은 50년대의 활력은 지난과, 60년대의 격동의 세월, 70년대의 피와땀이 서린 국민적 노력, 80~90년대의 완전 성장기를 거쳐 지금 이렇게 일궈놓은 터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열매도 다 따먹기 전에 중국에 뺏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는 기업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기고

김준영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지식정보사회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과 개발은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원천이며 미래에 요구되는 능력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학습과 개발을 통한 지식은 부의 원천으로 인식됨이 일반적이지만 아인슈타인(A. Einstein)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했다. 여기서 상상력은 조직, 사회, 국가가 생존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한 경쟁적 창의력이다. 광주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광주발전의 추동력이 될 공적

고 새로운 정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즉, 전통시장 상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센터장 등을 초빙하여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시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교육학습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것은 액션러닝을 적용한 현장중심 문제해결 교육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사이버 교육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활성화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을 비롯하여, 개인용 컴퓨터 및 인터넷

창조도시를 위한 공무원 교육 필요하다

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끌어 내고,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역지사지(易地思之) 할 수 있는 공직자육성을 위한 인적 자원관리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혁명이 따라 다양한 사이버 학습(e-learning)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래에는 모바일 러닝 등을 통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 교육원 역시 e-learning 과 off-line 교육 등 다수의 교육훈련을 혼합해 진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Learning) 방식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첫째로 민선5기 시정시책을 뒷받침하는 창의적 직무역량 교육의 강화이다. 모든 공직자는 광주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미션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립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습득함으로써 치열한 도시경쟁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창의적 직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시정의 핵심 3각축인 민주·인권, 문화예술, 첨단과학산업의 영역을 더욱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을 강화하고, 새로운 창의창조의 행정문화와 전파 등 공직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하여 학습효과성을 높여겠다.

그밖에도 미래창조과정, 변화주도형 리더십, 창조도시 디자인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열린토론 운영 등을 통하여 주요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물건은 구입하였더라도 맘에 들지 않으면 리플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선발된 공무원은 리플을 요구할 수는 없다. 급변하는 시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직자 한명 한명이 특정분야의 창의성을 보유한 전문가로 육성하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비전의 원동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적응하는 숙달된 행정의 달인을 육성한다는 교육신념 아래 2011년 공무원교육의 사막을 열어나갈 것이다.

둘째, 민생현장 체험학습 및 실사구시 교육의 확대이다. 공리공론(空理空論)에 치우친 교육보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중심의 교육운영을 피하겠다. 공공행정 및 정책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이론적 측면보다는 'Knowledge in Action', 즉 실제 정책을 분석하

고 새로운 정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즉, 전통시장 상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센터장 등을 초빙하여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시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교육학습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것은 액션러닝을 적용한 현장중심 문제해결 교육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사이버 교육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활성화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을 비롯하여, 개인용 컴퓨터 및 인터넷

인타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 기쁨,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설계변경 남발 혈세 낭비 방치만 할 건가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광주시 A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국장은 단기방식으로 발주된 빛고을시민문화회관의 충수를 낮추는 등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빚고예산회관 인근 체육회 건물 리모델링에 전용한 의혹으로 지난해 말부터 감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0월까지 56건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해 200억2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91건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해 무려 410억5천만 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늘리기 지자재나 업체에서 일상화된 것이다.

물론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있다. 하지만, 잦은 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세금 낭비와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발주처의 담합,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일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이는 광주시만의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설계변경 남발은 우선순위에 타당성을 충분히 따져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일단 공사부터 벌여놓고 보는 잘못된 관행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선정과 발주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감사와 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시공사들이 공사를 때내기 위해 낙찰가를 낮게 책정하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늘리는 일은 업계에서 흔한 관행처럼 여기는 일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9년 1월부터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시공사들이 공사를 때내기 위해 낙찰가를 낮게 책정하고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늘리는 일은 업계에서 흔한 관행처럼 여기는 일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9년 1월부터

호남지역 사교육비 증가 전국 최고라니

사교육비가 여전히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사정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줄어든데 반해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열악한 호남지역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형 학원과 과목 당 30~50만 원에 달하는 고액과외, 전남·북 도시지역 학원 수강 증가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21만3000원, 16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 3.1% 증가했으며 전북은 16만4000원에 증가율이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은 0.8%가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사교육비 총 규모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3.5%가 줄었으나 광주 0.3%, 전남은 0.5% 감소에 그쳐 전국 평균치와 비교할 경우 되레 늘어난 셈이다.

이는 현 정부가 입시사정관계 등 대학입시제도 개선, 학원 단속 및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등 '사교육 개혁'을 내세웠지만 지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여전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제로 공부하는 곳은 학교가 아닌 학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이 지역 사교육비 증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학원 및 고액과외의 성행 등이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에 분원 등을 잇따라 개설할 수도된 기업

그럼에도 사교육 문제의 해답은 공공육 내실화에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와 확대, 대입 논술 비중 축소, 지속적 학원 단속 등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지속해 공공육 강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역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낙후지역에 우수교사 우선 배치 등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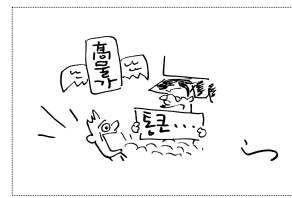
'싼게 비지떡?' 저가 상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일반적 견해다. 하지만 패션브랜드 자라와 H&M, 유니클로, 가구업체 이케아 등은 '싼게 비지떡'이라는 통념이 통하지 않는 브랜드다.

칩 시크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가격대비 가치가 높은 상품을 중시하는 실용적 소비문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 등 저가 유통채널의 확산 ▲중산층의 부상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멋있으면 저가 가격이 싼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로 선정된 회사다. 이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격이 싸면서 실용적이고 멋진

확산되고 있다. 맥도널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들도 1000원대 '롱큰 커피'를 내놓고 커피전문점들이 주도하는 시장을 파고 들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커피는 고품질의 원두를 사용해 커피 본연의 깊은 맛을 내면서 '착한 가격'까지

칩 시크 상품



'칩 시크(cheap-chi)' 상품(싸면서도 실용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중저가 제품 또는 서비스)이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보고서는 "2005년 국내 수송시장의 0.1%만을 담당했던 저가항공은 지난해 점유율이 34.9%로 늘어났으며 중저가 화장품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9.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니클로, H&M 등 중저가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칩 시크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05년 국내 수송시장의 0.1%만을 담당했던 저가항공은 지난해 점유율이 34.9%로 늘어났으며 중저가 화장품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9.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니클로, H&M 등 중저가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칩 시크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05년 국내 수송시장의 0.1%만을 담당했던 저가항공은 지난해 점유율이 34.9%로 늘어났으며 중저가 화장품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9.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니클로, H&M 등 중저가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칩 시크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logo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